

# “가족 같은 존재, 그 덕에 아이 키우죠”

## 가치육아 공동육아

### (2) 수놓음돌봄공동체

#### 여러 가족 서로 도우며 아이 ‘돌봄 공백’ 메워 공동체로 쌓이는 신뢰 아이에게도 긍정 효과

“서로가 없었다면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동료 가족’들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여덟 살 아이를 키우는 이소선(37) 씨가 말했다.

소선 씨가 ‘동료 가족’이라고 말한 이들은 ‘수놓음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다. 그는 아이가 되기 전인 2016년부터 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놓음돌봄공동체’(이하 공동체)를 공개 모집해 지원한 첫해였다.

공동체의 시작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예비 엄마들의 재능기부 모임이었다. 출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육아를 위한 공동체로 모습이 달라졌다. 참여 가족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마을에서 마주한 인연들이 지난해까지 7년째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다. 소선 씨는 “동네 수놓음육아나눔터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모이면서 공동체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일상 안 ‘돌봄공동체’... “없어진 안 될 존재”=소선 씨네를 비롯해 여섯 가족이 함께하는 ‘도담도담’ 공동체는 일상 안에서 움직인다. 부모가 급한 일이 있어 아이를 챙기기 어려울 땐 서로의 집에 돌봄을 부탁하고, 틈틈이 동네 공원과 학교 운동장 등에서 만나 신

나게 뛰는다. 시간이 맞는 주말이면 바깥나들이를 함께 가기도 한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거나 보여 주기식 활동과는 거리를 둔 게 오랜 기간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됐다.

“무리하면서까지 공동체 활동을 해야 했다면 부담과 책임을 느꼈을 거예요. 활동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든 품이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말을 자주 나눴어요. 공동체의 유일한 규칙이자 슬로건이 서로 ‘미안해하지 말기’입니다.” 소선 씨가 웃으며 말했다.

하나의 일상이 된 공동체는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다. 소선 씨는 “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아내면서 가족 같은 믿음이 생겼다”고 했다. 그가 아이를 낳아 생겼다고 했다. 그가 아이를 낳아 생겼다고 했다. 그가 아이를 낳아 생겼다고 했다. 그가 아이를 낳아 생겼다고 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주말에 일이 잡힐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주해 온 터라 제주에는 아이를 맡길 가족이 없었죠.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집에선 아이를 좀 봐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정말 가족과 같은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지난해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한 임하영(37) 씨도 세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영 씨네를 포함해 제주 이주민 다섯 가족으로 구성된 ‘우당탕탕 제주적응기’ 공동체는 제주 살이의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낯선 제주 생활이 외롭지 않았던 것도 공동체가 있어서였다.

여럿이 함께 커 간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부터 올해 11살 된 꼬마까지 아이 14명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영 씨는 “각자 집에서 형제들끼리만 놀 때는 잘 어울



수놓음돌봄공동체는 함께 육아하며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사진 위부터 ‘도담도담’, ‘우당탕탕 제주적응기’ 활동 사진.

리지 못하고 싸우던 아이들도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어울리면서 마음을 맞추며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여성 참여 ↑... ‘수놓음 돌봄’ 필요성 커=수놓음돌봄공동체는 그 이름 속 ‘수놓음’이라는 단어처럼 함께 육아하며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올해 유독 공동체 신청이 많았던 것은 그 필요성을 보여준다. 앞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지난해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공동체를 공개 모집했는데 83개 팀 모집에 152개 팀(738가족, 2788명)이 지원했다. 이는 공모 사업을 시

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수였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신청 현황을 보면 여성이 일하는 가구가 전체의 74%였다”며 “수놓음 돌봄 영역이 저년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의 참여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수놓음돌봄공동체는 조만간 활동을 시작한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다양한 수놓음 돌봄 활동을 이어간다. 공동체에는 팀별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영화觀

### 사랑의 자격

소파에 앉은 거구의 남자가 게이 포르노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다. 보통 거구가 아니다. 자신이 앉은 소파가 좁아 보일 정도로 자위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이다. 그의 쾌락을 향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심지어 낯선 이에게 이 은밀한 장면을 들켜서 감추지 못한다. 그렇게 쪼파게 아닌 척 하기에 그는 너무 비뚤하다. 무엇 하나 감출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주인공 찰리다. 272kg의 고래 같은 이 사내는 심지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가족을 등진 적이 있는데다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위해 작은 수고도 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는 얼차려 폭삭을 한다. 그를 도와주는 유일한 친구인 리즈에게도 그는 골칫거리다. 게다가 유일한 친구에게도 숨기는 것이 많아 그를 실망시키곤 한다. 스스로의 감정을 달래는 일 말고는 관심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물론 스스로를 달래는 일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삶을 방치하는 인물, 연민을 보내기엔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 ‘더 웨일’은 정상성의 측면에서 여러모로 아웃사이더인 한 남자, 찰리를 통해 묻는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하고 사랑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블랙 스왐’, ‘더 레슬러’ 등의 작품을 통해 자기 파괴와 구원의 영역을 배우의 힘을 빌려 꾸준히 이야기 해왔던 대런 아르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더 웨일’은 브렌드 프레이저라는 배우를 전면에 내세운다.

한때 ‘미이라’시리즈 등으로 월드 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헐리우드의 미남 배우는 어느 순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가 272kg의 거구 찰리로 분해



영화 ‘더 웨일’.

‘더 웨일’로 돌아왔다. 잊혀진 배우였던 브렌드 프레이저는 ‘더 웨일’로 ‘일생에 단 한 번 가능한 명연기’라는 극찬을 받으며 2023년 오스카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거머쥌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가 긴 시간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화려한 재기에 성공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다.

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누구일까. 사랑에 의해 망가져 버린 사람이 다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 연인과의 사랑을 택했던 찰리는 삶을 놓지 않기 위해 딸을 위한 사랑을 불태우고 있다. 어쩌면 사랑은 이토록 동시다발적으로 복잡하게 엉켜있는 전선 같은 건지도 모른다. 절연 상태의 인물인 찰리가 결국 절연이 불가능한 것인 걸 알게 됐을 때, 온 몸의 전류가 피처럼 돌아 다시 사랑의 상태로 돌려졌을 때 관객은 온전히 그의 감정에 전도된다. 사랑의 환희가, 사랑의 기적이 사실 사랑의 자격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마음이 놓였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함심하고와는 상관 없이 사랑의 온전함을 체험할 수 있으리란 믿음. 어쩌면 그 구원은 모두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가능성 일지도 모른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가치 육아 한리일보의 '가치 육아'는 같이 묻고 함께 고민하며 육아의 가치를 더하는 코너입니다. 부모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공동육아'와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지원센터 오명녀 센터장이 육아 멘토로 나서서 '이럴 땐'을 2주에 한 번씩 연재합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육아 이야기나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한리일보 가치 육아 담당자 이메일(jieun@ihalla.com)로 보내주세요.

경

## 한림수협 제20대 조합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 한림수협 조합원 및 임직원 일동 -

축

한림수협  
제20대 조합장 당선인  
**양 기 호**

문화! 복지! 교육! 지역민과 함께 융성하는!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27    [www.hallimsuhyup.kr](http://www.hallimsuhyup.kr)    (064)795-0521~5